

광주시 “AI·반도체 전문인력 등 81만명 키우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새 정부 임기 5년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AI)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조에 발맞춰 'AI선도도시'로서 오는 2030년까지 AI·디지털, 반도체, 문화콘텐츠 등 지역 미래전략산업과 연계한 총 81만명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산학연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취업하며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인재양성 정책에 더해 최근 로드맵을 제시한 '2030 인재양성 전략'을 중심으로 미래전략산업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30 인재양성전략' 실행 위한 논의 본격화

광주시는 지난날 11일 광주실감콘텐츠 큐브(GCC) VX스튜디오에서 교육계, 경제단체, 산업계, 공공기관 등 87개 기관·단체와 함께 '2030 광주 인재양성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인재와 함께 발전하는 광주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광주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 광주투자를 유인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보고회에서 '광주의 미래를 밝히는 LIGHT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30년까지 AI·디지털, 반도체, 문화콘텐츠 등 지역전략산업의 성장을 이끌 산업기술 인재 35만명 양성과 미래교육도시 기반 확산을 위한 인재 46만명 등 총 81만명의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30 인재양성 전략'의 성공을 위한 지산학연 거버넌스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6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AX미래전략산업 추진 간담회'에 참석, 산학협력 방안과 공동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원장 등을 비롯해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

이재명 정부 'AI 인재육성' 긴급대응... 교육·산업·공공 87곳 한뜻
전문가 양성 AI·GCC사관학교 인기... 초·중·고·대 연계교육 강점



조성준 전남대 기획처장, 이윤성 전남대 연구처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AX실증, 미래모빌리티, 2차전지, 메디헬스케어 등 지역주력산업과 대학 정책과제 등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AI, 디지털, 반도체, 문화콘텐츠 등 지역전략산업 분야에서 초·중·고부터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뿌리부터 튼튼한 인재양성 사다리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과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AI와 미래모빌리티, 에너지,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의 육성을 위해 대학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광주시와 함께 지역 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I GCC사관학교, 실무형 인재 배출 가속
광주시는 미래산업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인재양성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AI 기반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전국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AI사관학교를 운영해 1기 155명 수료생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221명의 AI 인재를 배출했다. 올해 제6기 330명을 최종 선발해 7개월 간의 AI 전문가 교육을 진행 중이다.

또, 미래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실감콘텐츠 기술인력과 실무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실감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GCC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1기 132명의 전문 인재를 배출했고, 올해 제2기는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140명을 선발해 교육 중이다.

실제로 AI사관학교와 GCC사관학교를 졸업한 인재들의 AI·반도체 분야 우수기업으로의 취업이 속속 이어지는 등 긍정적인 반향이 나타나고 있다.

AI 분야에서는 페르소나 AI, 인디제이, 썬어보야가 AI사관학교 출신 인재를 채용했고, 이들 기업은 Gen-AI 총회 대상과 CES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큐로드와 와이즈 VFX 등이 GCC사관학교 출신 인재를 다수 채용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에이저랜드와 에이퓨처가 광주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알약과 같은 알소프트로 유명한 이스트 소프트도 광주시와 함께 AI·디지털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적 기업인 퓨리오사아시아 등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협약 기업 또한 299개로 늘어났으며 이 중 158개사가 광주에 사무소와 연구소를 열었다.

◇지산학연 거버넌스 체계 강화 "81만명 인재양성 기대"
광주시는 국정기획위원회의 AI 교육강화 기조에 발맞춰 '2030 인재양성 전략'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산학연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교육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200억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추가 확보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적극 활용해 대학이 지역산업 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 '글로벌대학30'에 예비지정된 전남대와 조선대의 혁신과제에 지역전략 산업들이 촘촘히 연계돼 글로벌 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종 선정까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영길 기자

지역 청년 구직자들에 실전면접 훈련 광주시, 11일 '면접브랜딩 데이' 운영

오전 10시부터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동명센터서 진행
모의면접·특강·이미지컨설팅·사진촬영... 청년정책 소개도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동명센터 2층·6층에서 '2025 면접브랜딩 데이'를 운영한다. 이 행사는 광주시와 고용노동부가 협업해 추진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다.

면접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실전과 유사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함으로써 구직자의 자신감을 높이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우선 행사장 2층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사기업·공기업 직무 및 인성 면접 준비전략 특강'이 열린다.

6층에서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미지컨설팅(면접 화장법·헤어스타일링·퍼스널 컬러) ▲이력서 프로필 사진 촬영 및 정장 착용 체험 ▲사기업·공기업 전·현직 면접관과 모의면접 및 컨설팅이 진행된다.

6층 청년고용정책존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졸업생특화프로그램 ▲광주일자리종합센터 ▲광주청년일자리센터 ▲광주청년일자리센터 ▲광주청년일자리센터 등 정부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고용정책을 안



내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누리집(jobstation.co.kr) '동명센터 바로가기-직무역량 UP'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동명센터(☎062-531-1935)로 문의하면 된다. 행사 참여자들은 스태프투어 등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종팔 기자

전남도,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유치 쟁점음

용역 착수... 입지 적합성·부처 정책 연계 등 로드맵 마련키로

전라남도는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 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8일 도청에서 열어 센터 유치와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용역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나라 해양환경 변화와 어가 경영에 큰 피해를 유발하는 어업재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 역량을 갖춘 범국가적 전문기관을 전남에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을 통해 ▲전남의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 여건 및 경쟁력 분석 ▲센터 설립으로 수산업 등 관련 업종의 영향력, 경제적 파급력 분석 ▲범국가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단계별 전략 수립, 3대 과업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전남의 입지적 강점과 수산업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전남지역 설립의 타당성과 입지의 적합성을 도출하고, 중

양부처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을 다각도로 검토해 조직 구성과 운영 전략까지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후에너지부 설립 방향과 맞물려, 이번 용역은 전남도 차원에서 해양수산 분야 기후위기 대응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에너지부와 연계 기반을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정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이고, 전남의 수산업은 그 최전선에 있다"며 "전남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전국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센터 설립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인 기자

☎062-525-9775

'절세전략챗GPT 활용'... 광주상의, 회원기업 7월 실무강좌

으로 하는 '절세전략 : 세무사가 알려주지 않는 핵심 절세비법'이 마련된다. 강사는 오종원 회계사를 초빙했으며 ▲2025년 1기 확장신고대비 대손세액공제 절세비법 ▲업무추진비 세무관리 ▲근로소득 원천징수 비과세 규정 등의 내용을 각 과정별로 세분화해 7시간 동안 진행한다.

이 28일에 개최하는 '챗GPT의 원리 및 활용방안 A to Z'교육은 '선생님이 먼저 배우는 챗GPT'등을 집필한 박지훈 강사를 초빙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서·논문 작성 ▲프롬프트의 이해, 기법, 작성법 실습 등을 중심으로 7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광주상의의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자주

흔동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절세 전략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최근 기업 경영과 행정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생성형 AI 교육을 통해 회원업체 디지털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수강생에게는 교육 교재와 수업료 및 당일 무료 주차가 제공되며, 교육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상의 홈페이지나 회원 사업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임채일 기자



자연속의 가족매일 복성